

남구 무료 셔틀버스 재운행 한달...효과 '미미'

하루 이용 9명 미만...첫 운행비 감소 '인지도 제고·노선 확대' 필요 목소리 區 "적극 홍보·개선 사항 검토할 것"



광주 남구가 무료 셔틀버스 정책을 재정비한 후 운영을 재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최초 운행때보다 이용객이 감소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무료 셔틀버스는 평일 기점인 남구청(백운광장 대라수아파트 앞)을 기준으로 오전 6시30분~9시20분, 오후 12시30분~2시46분·5시29분 등 5차례 출발한다. 노선은 남구청에서 시작해 주월동 푸른길도서관-진월 작은도서관-진월동 행정복지

센터-송암동 행정복지센터-효천지구 스마트도서관-빛고을 농촌테마공원과 포춘사-대촌동 행정복지센터-승촌 게이트볼장을 지나 승촌 파크골프장에서 회차한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11월10일-12월31일 위탁 방식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당시 노선 수요와 예산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돼 이를 수용, 재정비에 나섰다.

이를 통해 승차자 위치를 대중교통 환승이 쉬운 곳으로 조정했다. 예산은 지난해 50여일 동안 4천500여만원이 집행됐으나, 올해 1년 운영 예산으로 1억1천여만원을 책정했고, 지역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첫 운행 대비 재운행 한 달간 이용객이 줄어들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운행한 37일간 총 탑승 인원은 1천200명 정도로 1일당 30여명이 이용했다.

재운행 시작 후 한 달 탑승객 수는 141명으로 일 평균 이용객이 9명 미만에 그쳤다. 첫 운행때와 비교하면 하루 이용객이 20명 넘게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이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극소수였다.

남구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대라수아파트 앞에는 '남구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관심을 갖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오전 9시20분이었음을 감안해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류장에서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였다.

이후 푸른길도서관과 빛고을 농촌 테마공원에서 각각 1명이 탔지만 종착지인 승촌파크골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나머지 8개 정류장에서 탑승객이 없었다.

오전 10시25분께 다시 남구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도 승촌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 2명이 추가로 탔을 뿐 버스 안이 텅 비어있던 건 마찬가지였다.

탑승한 주민들은 이용 편의 등에서는 만족했으나, 낮은 인지도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효천1지구 주민 박모(70대)씨는 "버스가 거의 지나지 않는 곳을 위주로 다니니 참 편하다"면서도 "주민 지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정류장 위치 등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60대·여)씨는 "마을 사람들이 자차가 없어 이동하기 불편한 경우가 태반"이라며 "일반 버스 노선이 부족한 이장동이나 양과동까지 확장되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구관계자는 "지난해와 운영 방식이 다르고, 운행에 나서지 얼마 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지만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등 적극 홍보로 이용객 수를 늘릴 계획"이라며 "교통약자 소외 해결을 위한 사업인 만큼 노선 개선 수요 등 민원을 검토해 더 많은 주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고흥 굴 양식장 '계절노동자 강제출국' 적발

이주단체 "브로커 개입...증거인멸 시도" 법무부 출국 보류 조치...구속수사 촉구

최근 고흥 한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브로커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을 강제출국시키려다 적발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동행 등 이주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 "필리핀 계절노동자 약 30명을 본국으로 강제 출국시켜 임금 착취 의혹과 관련한 증언과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께 한 필리핀 노동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로커가 동료 노동자들을 새벽에 출국시키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당일 오전 6시께 고흥군 영남면 사도마을의 브로커 사무실에 집결해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상황을 전달받은 법무부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7시16분께 고흥군에 해당 노동자들에게 대한 출국 보류 조치를 통보했으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단체는 또 고흥에 남아 있는 다른 노동자

들에게도 강제 출국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단체는 굴 양식장 사업주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인신매매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련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무부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단체들은 "브로커와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라며 "전남경찰청이 관련자들을 조직적으로 수사하고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계절이주노동자 제도와 관련해 "현행 농어업인력지원법에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고용주나 브로커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제재가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찬용 기자



어린이 통학로 돌출간판 안전점검 초등학교 개학과 해빙기를 맞아 10일 오전 광주 북구 하백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광고물관리팀과 전문가들이 보행 안전을 위해 돌출간판 추락 위험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지검, 되찾은 범죄수익 비트코인 315억 전량 국고 귀속

시세 영향 안가게 11일 걸쳐 소량씩 매각

검찰이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가 회수한 수백억대 암호화폐(비트코인) 전량을 매각해 국고 귀속 조치했다.

광주지검은 범죄수익 압수관리 과정에서 탈취당했다가 되찾은 비트코인 3208개 전량을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 대량 매각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날 6일까지 1

일 동안 소량씩 매각했다.

매각으로 국고 환수된 금액은 315억8천863만 원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검찰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했고, 비트코인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서야 탈취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이

콜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을 조회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구글에서 검색했다가 유사하게 만들어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수사관들이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2자리 니모니 코드(비밀번호)를 입력해 결국 전량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현금화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차단하는 등 조치에 나서 전량을 회수했다.

검찰은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와 내부 감찰 등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재영 기자

제주항공 참사 일부 유가족 '국가 위로금 지급' 촉구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일부가 국가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 74명이 참여한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위로금 추진 결사(이하 총특위추)'는 10일 성명을 내 "국가는 사과에 그치지 말고 국가 위로금 지급 등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특위추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이 희생된 지 1년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은

생계를 포기한 채 진상 규명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참사에서 유가족이 다시 소송으로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국가 위로금 지급과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해당 요구가 유가족을 공식 대표하는 가구인 유가족협의회에 입장과는 별개로 밝혔다. /윤찬용 기자

60플 라익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